

臟腑病 辨證에 대한 形象醫學的 考察

김경철 · 이용태*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동의대학교 한의학연구소

Diseases of Jang and Bu in Hyungsang Medicine

Kyung Chul Kim, Yong Tae Lee*

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Research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Clinical observation on the diseases of Jang(臟) and Bu(腑) comes to the conclusions as follows: Variation in Jang(臟) and Bu(腑) exists diversely with every man because man is a microcosmos resembling the great universe, 'Mother Nature'. If the patient has a distinctive features of Jang(臟) and Bu(腑) in configuration, the diseases must be caused by the problems of Jang(臟) and Bu(腑). Distinctive features of Jang(臟) and Bu(腑) can be recognized by the shape and color of face, ear, eye, mouth and nose. Distinctive features of Jang(臟) and Bu(腑) should be examined preferentially when it comes to old people, children and persons who have past record of surgical operation on Jang(臟) and Bu(腑) organs.

Key words : Jang(臟) and Bu(腑), HyungSang Medicine, Jung, Ki, Shin, Hyul

서 론

인체는 精氣神血, 五臟六腑, 外形(皮肉筋骨脈), 經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¹⁾ 이 중에서 五臟六腑는 精氣神血을 生産·貯藏하고 運行시키는 주체인 동시에, 經絡을 통하여 外形을 滋養하고, 皮毛가 六氣의 出入을 調節하도록 도와서 안팎으로 人體를 調節하는 기관이다. 五臟六腑가 이처럼 다른 구성조직들과 긴밀히 연락되어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인체 운행에서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하나라도 없으면 인간 생명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처럼 중요한 五臟六腑에 문제가 생겨 그 기능수행이 잘 안되었을 때는 여러 가지 병과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데, 臟腑 外 다른 구성조직들로 인해 병이 왔더라도 臟腑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臟腑로 인한 혹은 臟腑와 연관된 질병은 인간 질병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다만 臟腑 自體의 문제로부터 생기는 질병²⁾과 臟腑 外 다른 구성조직들로 인해 생긴 질병은 그 병인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증상에서는 유사한 부분이 많으므로 진단에서 臟腑病인지 아닌지를 먼저 잘 구분하면 診斷과 治療에서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 질병을 판단하는 것이 診斷인데, 五臟六腑는 몸 안에 들어 있어 직접 보거나 만질 수 없으므로, 몸밖에 드러난 形象으로 五臟六腑의 조직특성과 기능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환자를 진찰할 때 韓醫에서는 일반적으로 望問聞切의 방법으로 色音味脈을 살피고 있는데,³⁾ 『內經』에서는 병의 치료를 위해 환자의 形氣色澤을 관찰한다고 하였으며,⁴⁾ 또 色脈合參을 중요시하였다.⁵⁾ 선현들은 특히 '從外知內'라 하여 밖을 보고 안을 알 수 있는 望診을 중요시 여겼고, 朱丹溪는 外症이 같을 지라도 사람에 따라 形色이 다르면 臟腑도 같지 않아 治法도 다르다고 하여 形色을 중시하였고,⁶⁾ 李樹도 '觀形察色'이라 하여 形과 色을 중요시 여겼다. 차기도 '形象을 살피는 것은 바로 대상의 本質을 파악하는 것이다'고 하여 形象을 매우 중요시 여겼으며, '形象을 봄으로써 病의 原因과 變化흐름을 豫測할 수 있으니, 形象을 보지 않고는 병을 알 수 없다'고 하였다.⁸⁾ 그러므로 望診을 위주로 '臟腑의 形象'을 살펴 그 사람의 생리·병리적 경향성을 예측하고 形色脈症의 合一을 통해 診斷한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겠다.

1) 對譯東醫寶鑑, p.10
2) 이하 '臟腑病'이라 한다.
3) 望而知之謂之神, 聞而知之謂之聖, 問而知之謂之工, 切脈而知之謂之巧, 以內知之曰神, 以外知之曰聖, 神聖工巧謂之四象, 神聖工巧何謂也, 曰望而知之者, 望見其五色以知其病也, 聞而知之者, 聞其五音而別其病也, 問而知之者, 問其所欲五味以知其病所起所在也, 切脈而知之者, 診其寸口, 視其虛實, 以知其病在何臟腑也. <八十一難經解釋, p.36>
4) 凡治病, 察其形氣色澤. <黃帝內經譯解(素問), . p.172>
5) 能合脈色 可以萬全. <黃帝內經譯解, p.97>
6) 對譯東醫寶鑑, p.115
7) 朴仁圭, 號는 芝山
8) 芝山先生 臨床學特講VI, p.323

* 교신저자 : 이용태, 부산광역시 진구 양정동,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ytleed@dongeui.ac.kr · Tel : 051-850-8635
· 접수 : 2003/02/28 · 수정 : 2003/04/15 · 채택 : 2003/05/23

이에 필자는 臟腑의 形象 特徵에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 形象과 色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 臟腑의 形象 特徵을 구체적으로 뭘 보고 알 수 있는지를 望診(形, 色)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臟腑의 形象 特徵에 따라 어떤 症狀이 올 수 있으며, 또 그에 따른 治療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臨床實例을 들어 실증하고자 한다.

본론 및 고찰

1. 臟腑의 形象을 살피는 이유

臟腑의 形象을 통해 그 사람의 생리·병리적인 경향성을 예측한다는 것은 각 사람마다 서로 다른 臟腑의 偏差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臟腑는 모든 사람에게 다 존재하는데, 왜 각각의 사람마다 臟腑의 偏差가 다르게 존재하는지 이유와 의미를 살펴보자.

1) 사람은 小宇宙

사람은 소우주로 대우주인 천지자연의 형상을 본 따고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孫真人은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다. 머리가 둥근 것은 하늘을 본받았고, 발이 모난 것은 땅을 본받은 것이다... 땅에 샘물이 있듯이 사람에게에는 血脈이 있다. 땅에 草木이 있듯이 사람에게에는 毛髮이 있으며, 땅에 쇠와 돌이 있듯이 사람에게에는 이가 있다. 이러한 것은 모두 四大·五常을 받아 조화하여 形體를 이룬다'라고 하여 天人相應에 대해 매우 상세하고 밝히고 있다. 또한 『內經』에서는 天地自然의 四時五行과 사람의 五臟을 상응시켜 그 운행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⁹⁾

이와 같이 天地自然의 모든 구성물과 운행은 人體의 모든 구성물 및 운행과 각각 대응을 이루고 있으므로 인체의 조직과 운행의 이치를 알려면 천지자연의 이치를 먼저 살펴야 한다.

2) 사람마다 서로 다른 臟腑의 偏差가 존재한다

사람이 대우주인 천지자연을 본 따고 있으며 천지자연의 四時五行처럼 사람의 五臟도 인체 내에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 그렇다면 사람에 臟腑의 偏差가 존재하는 것도 天地自然의 어떤 偏差를 닮아 그러할 것이다. 『內經·素問』에서, 天地는 東西南北에 따라 陰陽의 偏差가 있고, 사람도 이와 같이 耳目口鼻와 手足의 기능이 上下左右에서 偏差가 있다고 했다.¹⁰⁾ 天地自然이 이렇듯 그 自體에서 陰陽의 偏差를 가지고 있으며, 사람도 천지자연을 닮아 겉으로는 좌우 대칭이며 완전해 보이나 내의 臟腑 構造와 외의 身形 機能에서 偏差를 가지고 있는 不完全存在物이다. 朱丹溪는, "일반적으로 사람 형체는 키가 큰 사람은 작은 사람만 못하며, 살진 사람은 여윈 사람만 못하며, ..., 이렇게 사람에 따라 形과 色이 다르고 臟腑도 다르므로 외부 症狀은

비록 같다고 하더라도 治法은 사람에 따라 확연히 다르다"고 하였다.¹²⁾ 또한 사람마다 臟腑의 偏差가 있으나 그 내용이 서로 다른 것은, 自然에서도 天地의 氣가 交合되어 萬物이 만들어지거나 그때 그때의 與件에 따라 서로 다른 다양한 만물이 생성되는 것처럼, 사람도 父精母血의 交合으로 만들어지지만 각각의 부모가 다르고 또 入胎 時의 여러 環境 與件이 달라 서로 다른 特徵 및 臟腑의 偏差를 갖은 사람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3) 臟腑마다 形象 特徵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臟腑의 偏差가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존재하는데, 각 臟腑에도 다양한 形象 特徵이 있을 수 있다. 『靈樞·本藏』에서, 인간 五臟은 천지자연과 주위환경의 변화에 속속들이 상관하고, 음양의 변화규율에 부합하며, 사시변화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오행의 질서에 상응해서 변화해가며, 이러한 연유로 五臟의 性質·形態·位置·方面에 본래부터 大小, 高下, 堅脆, 端正偏傾에 差異가 있을 수밖에 없고, 六腑 역시 大小·長短·厚薄·直結·緩急에 差異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¹³⁾ 『靈樞』에서는, 臟腑의 形象 特徵은 각각 특정 性情과 신체 증상 등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¹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마다 臟腑의 偏差가 다르게 다양하게 존재하며, 이는 사람마다 인체에 내재된 본질과 환경에 대한 적응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진단에서 臟腑의 偏差 즉 臟腑의 形象 特徵을 살피는 것은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노력의 일부로, 臟腑病의 診斷과 治療에 있어 가장 근본적이며 우선적인 필요과제라 하겠다.

2. 臟腑의 形象을 살필 때 우선되는 것

臟腑의 形象 特徵이 이처럼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진단에서 臟腑病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처럼 臟腑의 形象 관찰에서도 먼저 확인해서 효율적인 것들이 있다. 모든 사물에 있어 組織과 運行은 함께 존재하는데, 組織은 運行을 위해 존재하고 運行은 組織을 위해 존재한다. 臟腑의 形象(組織)을 살피는 것이 臟腑의 機能狀態(運行)를 알기 위해서인 것처럼 臟腑의 形象을 살피기 위해서는 臟腑의 機能을 먼저 알아야 한다. 『內經·靈樞』에서, 臟은 精氣神血과 魂魄을 貯藏하고, 腑는 水穀을 消化하고 津液을 輸送한다고 하였는데,¹⁵⁾ 五臟과 六腑의 기능이 이처럼 확연히 다르게 대별되는 만큼, 五臟과 六腑를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五臟의 形象에서 大小를 위주로 살핀다

五臟은 생명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다섯 가지 다른 종류의 내용물을 저장하기 위해 서로 다른 외부모양과 내부조직을 갖는 다섯 가지 그릇과 같으며, 또 각각 다른 다섯 가지 생명활동을

9) 對譯東醫寶鑑, p. 115

10) 天有四時五行以生長收藏, 以生寒暑燥濕風. 人有五臟化五氣, 以生喜怒悲憂恐. <黃帝內經譯解, p. 47>

11) 天不足西北, 故西北方陰也, 而人右耳目不如左明也. 地不滿東南, 故東南方陽也, 而人左手足不如右強也. 帝曰: 何以然? 岐伯曰: 東方陽也, 陽者其精並於上, 並於上則上明而下虛, 故使耳目聰明而手足不便. 西方陰也, 陰者其精並於下, 並於下則下盛而上虛, 故其耳目不聰明而手足便也. 故俱盛於邪, 其在上則右甚, 在下則左甚, 此天地陰陽所不能全也, 故邪居之. <黃帝內經譯解, p. 55>

12) 對譯東醫寶鑑, p. 115

13) 五臟者, 所以參天地, 副陰陽, 而運四時, 化五節者也. 五臟者, 固有大小高下堅脆端正偏傾者, 六腑亦有, 小大長短厚薄結直緩急. <黃帝內經譯解, p. 351>

14) 五臟皆小者, 少病, 苦焦心, 大愁憂. 五臟皆大者, 緩于事, 難使以憂. 臟皆高者, 好高舉措. 五臟皆下者, 好出入下. 五臟皆堅者, 無病. 五臟皆脆者, 不離于病. 五臟皆端正者, 和利得人心. 五臟皆偏傾者, 邪心而善盜不可以爲人平, 反復言語也. <黃帝內經譯解, pp. 355-356>

15) 五臟者, 所以藏精神, 血氣, 魂魄者也. 六腑者, 所以化水谷而行津液者也 <黃帝內經譯解(靈樞), p. 349>

발생·유지시키는 엔진의 역할을 한다. 五臟은 이를 위해 그 사람의 몸에 맞는 적절한 크기와 위치와 방향 등의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臟腑들과의 긴밀한 연계 속에 인체의 총체적인 생명활동을 유지해나가고 있는데, 문헌에서는 그 중 五臟의 大小를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다. 『內經·素問』¹⁶⁾에서 大小에 대한 개념을 추론해 보면, 地는 陰으로 만물을 싣고 있는데 그 大小를 量으로써 측정한다. 인체에서 陰에 속하는 五臟이 精氣神血과 魂魄을 貯藏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만큼의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공간(組織)이 필요한데, 이 공간의 부피를 결정하는 것이 臟腑의 크기이므로 그 大小가 중요하다. 물론 여기에는 필요한 만큼의 생명활동을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運行)의 크기에 대한 大小의 뜻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五臟의 위치나 기울어짐 등도 중요하며 주의 깊게 살펴져야 하지만, 五臟의 大小가 다른 특징들보다 우선적으로 살펴져야 한다.

2) 五臟의 大小에서 大를 위주로 살핀다

사람마다 자신의 몸에 비해 크고 작은 臟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 중 어떤 臟은 다른 臟들보다 그 사람의 운행특성과 질병발생에 더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內經』에서는 五臟 각각에 대해서, 臟이 작으면 안정되고 병이 없으며 邪氣에 잘 상하지 않고, 臟이 크면 여러 가지 병증이 나타나며 邪氣에 잘 상한다고 하였다.¹⁷⁾ 작은 臟은 기능도 약하기 때문에 병이 오기 쉬운 것 같은데, 『內經』에서는 오히려 큰 臟에 병이 많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五臟의 大小를 精氣神血을 저장하는 그릇과 인체생명활동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엔진이라는 입장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큰 臟은 부피가 큰 그릇, 용량이 큰 엔진이다.

큰 臟을 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큰 臟은 많이 담을 수 있다. 精氣神血을 많이 담을 수 있으며 또 많이 쓸 수 있으므로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활용도가 높으면서 실제 많이 혹은 과다하게 활용되고 있을 때, 우리는 보통 實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너무 과다하게 활용되다 보면 결국은 精氣神血이 충분히 채워지기 전에 臟은 비고 활용도가 낮아져 오히려 虛해지기 쉽다. 둘째, 臟이 크면 클수록 채우는 데에 많은 양의 내용물이 필요하게 되므로 충분히 채우기가 쉽지 않다. 큰 臟에 비해 내용물은 상대적으로 항상 부족하기 쉽고, 곧 자체 용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虛해지기 쉽다. 이와 같이 큰 臟은 實해지거나 虛해지기 쉽고, 이로 인해 臟 자체로 혹은 다른 臟과 연계된 병증을 유발시킬 기회가 많다. 큰 臟을 외적으로 살펴보면, 큰 臟이 이미 정해진 몸통의 용적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그 臟과 맞닿는 몸통의 外形(복부, 갈비뼈, 가슴...)이나 다른 臟腑 혹은 부속구조물에 압박을 줄 수가 있다. 물론 臟이 몸통의 外形이나 다른 臟腑 및 기타 부속구조물에 의해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肝이 크면 갈비뼈나 옆구리나 胃 등을 압박할 수 있고, 혹은 큰 肝이 갈

비뼈 등에 의해 압박 받을 수도 있다. 큰 臟을 변화와 적응이라는 면에서 살펴보면, 인체는 외부 六氣와 상응하여 삶을 유지해 나가는데 臟이 크면 외적으로 눈에 잘 띄게 되어 外邪의 표적이 되기 쉽고 공격을 받기도 쉽다. 또한 몸집이 크면 작은 것에 비해 움직임이 느려서 필요한 변화에 적응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¹⁸⁾

(2) 작은 臟은 부피가 적은 그릇이며, 용량이 적은 엔진이다.

작은 臟을 내적으로 살펴보면, 臟이 작으면 절대적인 용량을 클 순 없겠지만 작은 臟을 충분히 채우는 것은 큰 臟을 충분히 채우는 경우보다 훨씬 쉽다. 평소에 臟이 채워져 있기 쉬운 만큼 잘 虛해지지 않을 것이며, 작더라도 가득 채워져 있는 臟은 상대적으로 든든하다. 절대적인 양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걸 알기에 쉽게 낭비되지 않으며, 이런 이유로 작은 臟은 實해지거나 虛해짐으로 인해 병이 올 기회가 적다.

상기한 臟腑의 大小와 질병 발생 가능성에 관한 필자의 견해는 인체 내 臟腑를 포함한 모든 구조물들이 각각 살아있는 存在物로서 활동하며, 매우 능동적이고 조직적으로 내외의 변화와 사기에 적응하고 싸워나가면서 인체를 유지·발전시켜 나간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臟腑의 大小와 질병 발생의 연관성에 대해 朱丹溪도 '사람의 形에 있어 큰 것이 작은 것만 못하며, 긴 것이 짧은 것만 못하다고 하였으며,¹⁹⁾ 形象醫學에서도 "큰 것이 병이다."고 하였다.²⁰⁾ 큰 臟이 병을 가져오기 쉽다는 것은 그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이 臟腑의 偏差로 큰 臟을 갖고 있지만 사람마다 자신의 또 다른 몸의 특성과 환경여건에 따라 쉽게 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3) 五臟에서 발달된 臟을 찾는다

구조적으로 큰 臟은 운행 면에서도 나머지 臟에 비해 상대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인체 내 五臟六腑의 공조체계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그 결과는 외부 性情·얼굴색·生活樣相 등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처럼 생리·병리적 경향성을 이끌어 내는 구조와 기능 면에서 모두 발달된 臟(이하 '발달된 臟'이라 한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적절한 한도의 생리적인 면에서는 인체가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나 큰 臟의 활동이 지나치게 항진되어 병리적인 면으로 넘어가면 여러 가지 불편 증상이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환자를 진료할 때 여러 가지 병을 가져올 가능성이 큰 '발달된 臟'을 우선으로 찾는다면, 확률 높은 진단의 실마리를 얻게 될 것이다.

4) 六腑의 形象을 살필 때 우선되는 것이 각각 다르다

六腑는 모두 水穀을 化하고 津液을 輸送하는 管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 형태에 있어서는 제각기 다르다. 膽과 胃와 膀胱은 관이면서도 주머니 모양이며 일정시간 내용물을 간직하고 있다 보내는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膽과 胃는 五臟처럼 大小가 중요한 관건이 되었고, 虛實 판단이 치료의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膀胱은 액체인 내용물을 잘 모았다가 일정량이

16) 天은 至廣하여 不可度이요 地는 至大하여 不可量이나 ...〈素問研究集成, p. 338〉
 17) 肝小則臟安, 無踴下之病, 肝大則道胃迫咽, 迫咽則苦膈中, 且脇下痛. 心小則安, 邪不能傷, 易傷以憂, 心大則憂不能傷, 易傷於邪. 脾小則臟安, 難傷於邪也, 脾大則苦溼炒而痛, 不能疾行. 肺小則少飲, 不病喘喝, 肺大則多飲, 善病胸脾, 喉痺, 逆氣. 腎小則臟安難傷, 腎大則善病腰痛, 不可以俛仰, 易傷於邪. 〈黃帝內經譯解(靈樞), pp. 351-353〉

18)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Ⅳ, p. 75
 19) 對譯東醫寶鑑, p. 115
 20)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Ⅰ, p. 180

되면 내보내야 하므로 대소보다는 쉽게 새느냐 아니냐 즉 漏泄의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 되었고, 小便狀態를 중심으로 하는 虛實寒熱판단이 치료의 중심이 되었다. 大腸과 小腸은 긴 관의 모양인데, 그 長短에 따라 기능의 활성화가 영향받는다. 관이 길면 수송이 늦어지면서 기능의 저하가 오기 쉽고 寒해지기 쉬우며, 관이 짧으면 수송이 빨라지면서 기능이 과 항진되고 熱해지기 쉽다. 임상에서 보면 大腸은 寒해져서 大便異常 등의 증상이 오는 경우가 많고, 小腸은 熱해져서 小便異常 등의 증상이 오는 경우가 많다. 三焦는 형체는 없고 작용만 있는데, 흉 복부를 상하로 관통하는 인체의 상하수도과 같이 작용하므로 上焦·中焦·下焦가 잘 通利되느냐 아니냐 하는 관의 直結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었다. 이처럼 六腑는 각각의 기능과 형태에 따라 우선적으로 관찰되어야 할 형상 특징에도 차이가 있다.

3. 望診으로 살피는 臟腑의 形象

臟腑는 인체의 내부에 있어 자연상태에서 직접 보거나 만질 수 없지만, 인체 외부에서 그 形象을 살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靈樞』에서는, 밖으로 응하는 것을 보고 안의 臟腑를 알 수 있는 즉 병의 소재를 알 수 있다고 하였고,²¹⁾ 朴도 '五臟은 胞蟲大小便을 통해 그 운행상황이 드러나고, 또 입사귀에 해당하는 얼굴을 통해 몸통이라는 발에 심어진 종자가 어떤 것인지 드러난다'고 하였고.²²⁾ 이는 밖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안을 파악하는 從外知內의 방식으로 臟腑의 形象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다.

『內經』에서는 形色脈症의 진단방법을 얘기하면서, 五臟의 形象은 類로써 유추하고 五色의 정미로운 진찰은 눈으로써 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²³⁾ 자연상태에서 관찰할 수 있는 望診(形態, 色)의 범위에서 그 구체적인 類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겠다.

1) 耳目口鼻를 통해 발달된 臟을 찾는다

『圖書編』에서, 얼굴은 耳目口鼻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하늘의 五行에서 말미암은 것이고, 배는 肝心脾肺腎을 간직하고 있으며 이는 땅의 五行에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였는데,²⁴⁾ 자연에서 天과 地가 상응하는 것처럼 사람에게서 얼굴의 耳目口鼻와 복부의 肝心脾肺腎이 대응하고 있다. 『內經』에서 五臟은 五官인 耳目口鼻를 통해서 밖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고 하였는데, 肝은 눈으로, 肺는 코로, 脾는 입으로, 腎은 귀로, 心은 혀로 드러내므로 우리는 이를 보고 五臟의 狀態를 간파할 수 있다고 하였다.²⁵⁾

이상의 문헌을 통해 보면, 얼굴의 耳目口鼻와 흉복부의 五臟이 각각 상응하고 있으므로 耳目口鼻를 통해 五臟의 形象과 生理·病理의 傾向性을 유추할 수 있겠다. 곧 눈은 肝의 形象을, 코는 肺의 形象을, 귀는 腎의 形象을, 입은 脾의 形象을, 혀는 心의

形象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耳目口鼻 중 어느 것이 큰 지를 보고 五臟 중 어느 臟이 발달한 지를 알 수 있으며, 그 발달한 臟을 위주로 인체의 생리·병리활동이 타 臟에 비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을 예측할 수 있다.

2) 五色을 통해 발달된 臟을 찾는다

『靈樞』에서, 각 五臟은 천지자연의 기에 상응하는 色을 가지는데, 青色은 肝, 赤色은 心, 白色은 肺, 黃色은 脾, 黑色은 腎이 된다고 하였다.²⁶⁾ 또한 色과 膜理의 크기를 통해 五臟의 大小를 밝히고 있다.²⁷⁾

이상의 문헌을 통해 볼 때, 얼굴의 色으로 그 사람의 몸에서 현재 왕성한 활동을 하는 臟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질병이 아닌 생리적인 상태라면, 얼굴 색은 건강한 상태에서 그 사람의 五臟 중 왕성한 활동을 하는 발달된 臟의 色일 것이며, 이는 五官을 통해 보이는 발달된 臟의 色과 일치될 수 있다. 혹은 사계절에 따라 인체가 변화·적응하면서 보이는 季節色일 수도 있다. 질병의 상태라면, 얼굴 색은 질병과 연관된 臟이나 外氣 등과 연관된 色일 것이며, 이때 만약 五臟病의 상태라면 왕성한 활동의 臟으로부터 병이 올 확률이 크므로 역시 발달된 臟의 色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환자를 진료할 때 특정한 얼굴 색이 보이면 그 色과 관련된 臟을 발달된 臟으로 하여 병을 의심해 볼 수도 있다. 물론 얼굴 색은 시간과 상태에 따라 순간, 순간 끊임없이 변해가며, 한 얼굴 면에서도 부위나 질병성질에 따라 여러 가지 色이 공존할 수 있으므로, 察色 자체가 그리 쉽지는 않다.

3) 五體·五華를 통해 五臟의 기능상태를 살핀다

몸통에서 臟이 위치한 부분의 外形과, 臟과 연관된 五體(皮, 肉, 筋, 骨, 脈)와 五華(瓜, 色, 膚, 毛, 髮)를 관찰함으로써 五臟의 形象과 기능상태를 예측할 수도 있다.²⁸⁾

상기한, 문헌에 있는 五臟의 形象觀察方法을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 五臟의 形象觀察法

五臟	類	五官	五色	五體	五華	外形
肝		目	青	筋	瓜	脇肋
心		舌	赤	脈	色	鬪肝
脾		口	黃	肉	膚	(唇)
肺		鼻	白	皮	毛	肩背
腎		耳	黑	骨	髮	(耳)

위의 표 1 과 같이 얼굴의 耳目口鼻와 얼굴색과 五體·五華 등을 통해 五臟의 形象과 기능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 從外知內의 원리에 의해 五臟을 살피고 있는 만큼 자연상태에서 어떤 인위적인 작업 없이도 가장 분명하게 밖으로 드러나는 얼굴

21) 視其外應, 以知其內臟, 則知所病矣. <黃帝內經譯解(靈樞), p. 358>
 22)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Ⅳ, p. 120
 23) 夫脈之小大, 滑澀浮沈, 可以指別. 五臟之象, 可以類推. 五臟相音, 可以意識. 五色微診, 可以目察. <黃帝內經譯解(素問), p. 96>
 24) 人之面, 略耳, 目, 鼻, 口, 舌 猶天之五行也, 腹略肝, 肺, 脾, 腎, 心, 猶地之也, 耳鼻縱而孔竅凹, 靜而陰也, 目口橫而睛凸, 動而陽也. <醫部全錄, 臟腑門 卷 95, p. 57-58>
 25) 五官者, 五臟之闕也. 黃帝曰: 願聞五官. 岐伯曰 鼻者 肺之官也. 目者 肝之官也. 口唇者 脾之官也. 舌者 心之官也. 耳者 腎之官也 <黃帝內經譯解(靈樞), pp. 298-300>

26) 以五色命臟, 青爲肝, 赤爲心, 白爲肺, 黃爲脾, 黑爲腎. <黃帝內經譯解(靈樞), p. 374>
 27) 青色小理者, 肝小. 靨理者, 肝大. 赤色小理者, 心小. 靨理者, 心大. 黃小理者, 脾小. 靨理者, 脾大. 白色小理者, 肺小. 靨理者, 肺大. 黑色小者, 腎小. 靨理者, 腎大. <黃帝內經譯解(靈樞), pp. 354-355>
 28) 黃帝內經譯解(素問), pp. 93-94

의 耳目口鼻와 色이 五臟의 形象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이 중에서도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얼굴색 보다는 耳目口鼻가 五臟의 形象觀察에 가장 우선적이며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顏面에서 六腑의 形象을 살핀다

五臟과 마찬가지로 六腑도 역시 인체 내부에 감추어져 있고, 인체 외부의 얼굴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 눈 아래 臥蠶은 膽의 形象을, 입술의 두터움과 人中의 길이는 小腸의 形象을, 입과 입술은 胃의 形象을, 코의 길이는 大腸의 形象을, 코구멍의 드러남은 膀胱의 形象을, 코뼈의 일어남은 三焦의 形象을 보여준다.²⁹⁾³⁰⁾

5) 五體·五華를 통해 六腑의 기능상태를 살핀다

六腑는 五臟과 각각 짝을 이루고 있으며, 각 臟과 연결되는 五體와 五華를 통해서 자신의 기능상태를 보여주고 있다.³¹⁾

상기한, 문헌에 있는 六腑의 形象觀察方法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 六腑의 形象觀察法

六腑	類	顏面靈樞 (千金方)	五體	五華
膽		目下果大, 其膽乃橫	筋	瓜
胃		廣骸, 大頸, 張胸(口脣)	肉	肉腠
小腸		脣厚人中長, 以候小腸	脈	脈
大腸		鼻隧以長, 以候大腸(鼻主中央)	皮	皮
膀胱		鼻孔在外, 膀胱漏泄	腠理毫毛	腠理毫毛
三焦		鼻柱中央起, 三焦乃約 (三焦形相厚薄大小, 並同膀胱之形)	腠理毫毛	腠理毫毛

위의 표 2 와 같이 顏面과 五體·五華 등을 통해 六腑의 形象과 기능상태를 가능해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耳目口鼻를 포함한 顏面의 특징이 五臟에서와 같은 이유로 六腑의 形象을 파악하는 데에 가장 우선적이며 중심이 된다.

3. 臟腑病의 診斷에서 유의할 점

1) 形色脈症의 合一을 통해 臟腑病을 診斷한다

耳目口鼻와 얼굴색으로 臟腑의 形象을 파악하여 인체운행의 생리·병리적 경향성을 예측한 후에는 이 臟腑로 인해 실제로 病이 왔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脈과 症으로써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朴은 '形色脈症의 合一을 통해 진정한 진단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으며, '問診은 不特定한 것을 특정화시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³²⁾ 形象을 통해 예측된 臟腑病이 症과 脈으로 일치되면 진단은 완료되고 곧바로 치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만약 形象을

통해 예측된 臟腑病이 症과 脈에서 일치되지 않으면 다른 병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사람이 가진 또 다른 臟腑의 形象 특징이나 臟腑의 다른 조직구성물인 精氣神血, 外形, 經絡 등에서 오는 병을 의심하고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단에서 形과 色의 관찰이 우선되고 중심이 되나, 여기에 脈과 症의 合一을 통해서만이 보다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때로 환자의 호소나 의사의 望診으로 증상이 먼저 파악되었을 때라도, 形色脈을 통해 그 병인을 확인해서 치료한다면, 증상에 관한 다수의 問診만으로 병인을 파악해서 치료하는 경우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정확할 것이다.

2) 臟腑病이 먼저 의심되어야 할 경우가 있다

사람은 臟腑 외에도 精氣神血, 外形, 經絡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방식(예를 들어, 飲食, 居處, 七情, 性生活 등)도 그 사람의 정신과 육체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에게 병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臟腑가 病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특히 큰 사람들이 있다.

첫째, 어린아이의 경우이다. 어린아이는 생활방식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어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때문에 타고난 특성대로 병이 오기 쉬우므로, 어린아이는 臟腑의 形象을 먼저 살필 필요가 있다. 形象醫學에서는 대체로 10세 전후까지에서 五臟病을 우선으로 살피고 있다.³³⁾ 둘째, 노인의 경우이다. 나이를 먹으면 누구나 다 血과 氣가 衰해지고 五臟도 모두 순차적으로 虛해지나,³⁴⁾ 오랫동안 양상한 활동을 했던 臟은 다른 臟보다 먼저 혹은 심하게 虛해질 수 있으므로, 노인의 경우 臟腑의 形象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타고날 때부터 臟腑의 偏差가 매우 두드러지는 사람의 경우이다. 이들은 耳目口鼻뿐 아니라 性情, 行動樣式 등에서도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므로 臟腑病을 먼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臟腑가 手術 등으로 직접 손상을 받은 경우이다. 수술을 받게 되기까지 이미 臟腑자체의 문제를 끼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또 수술로 인해 臟腑의 形이 損傷되면 그 기능이 떨어져 이차적으로 많은 臟腑病을 불러올 수 있게 되므로, 臟腑 手術을 받은 환자라면 臟腑의 形象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臟腑의 形象 特徵이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있다

臟腑가 대체로 고르게 균형을 갖추어 形象 特徵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며, 이런 사람은 臟腑病이 생기게 될 확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매우 낮다. 이런 사람의 경우는 다른 조직구성물이나 생활여건, 외기 등에서 그 병인을 찾아볼 수 있으며, 臟腑病에서 보이는 것과 유사한 증상이 있더라도 臟腑病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 때로 자기의 몸에 비해 전반적으로 臟腑가 큰 경우나 작은 경우도 있으며, 『內經』에서는 이와 관련해, 五臟이 모두 작은 사람은 마음을 태우며 근심걱정이 많고, 五臟이 모두 큰 사람은 매사에 완만하며 잘 근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³⁵⁾ 朴은 이에 대해 '五臟이 모두 작은 것은 五臟을 포함하는 코가 작다는 것이며, 五臟이 모두 큰 것은 코가 크다는 것이다. 코가 작으면 소심하다는 말도 여기에서 나왔다'고 했다.³⁶⁾

29) 目下果大, 其膽乃橫. 脣厚人中長以候小腸. 胃腑者, 主脾也. 口脣者, 是其候也. 大腸 腑者, 主肺也. 鼻主中央, 是其候也. 膀胱者, 主腎也. 耳中是候也. ... 脾空在外, 膀胱漏泄. 三焦名中滿之腑, 別号玉海水道. 出屬膀胱合者 雖合而不同. ... 其三焦形 相厚薄大小, 並同膀胱之形云. <醫部全錄 臟腑門 卷97 p. 101, 卷98 p. 139, 卷101 p. 202, 卷102 p. 242, 卷104 p. 2 卷105 p. 300>

30) 六腑者, 胃爲之海, 廣骸, 大頸, 張胸, 五谷乃容. 鼻隧以長, 以候大腸. 脣人中長, 以候小腸. 目下果大, 其膽乃橫. 鼻孔在外, 膀胱漏泄. 鼻柱中央起, 三焦乃約, 此所以候六腑者也. <黃帝內經釋解(靈樞), p. 269>

31) 黃帝內經釋解(靈樞), pp. 356-358

32)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 p. 212

33)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I, p. 71

34) 對譯東醫寶鑑, p. 117

35) 五臟皆小者, 少病, 苦焦心, 大愁憂. 五臟皆大者, 緩于事, 難使以憂. <帝內經釋解(靈樞), p. 355>

4. 五臟病 症狀과 治療

1) 五臟病의 症狀

耳目口鼻와 얼굴色, 五體, 五華 등으로 어떤 臟腑로 인해 병이 오기 쉬운지 살폈다면, 현재 그 臟腑 때문에 병이 온 것인지 아닌지는 그 臟腑와 연관된 病症(불편함)의 有無로 확인할 수 있다. 발달된 臟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症狀을 『東醫寶鑑』에서는 內外症 및 虛實症으로 구분하여 놓았는데,³⁷⁾³⁸⁾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五臟의 內外症과 虛實症

五臟	內外症		虛實症	
	外症	內症	虛症	實症
肝	面青, 善渴, 善怒	臍左有動氣安之牢若痛, 其病四肢滿閉, 淋澁, 便難, 轉筋	肝氣虛則恐, 肝虛則目眩無所見, 耳無所聞, 善恐, 如人將補之, 肝藏血, 血不足則恐	實則怒, 實則兩脇下痛引小腹, 善怒, 血有餘則怒
心	面赤, 口乾, 善笑	臍上有動氣安之牢若痛, 其病煩心, 心痛, 掌中熱而哕	心氣虛則悲, 心虛則胸腹大, 脇下如腰背相引而痛, 心藏神, 神不足則悲	實則笑不休, 實則胸中痛, 脇支滿, 脇下痛, 應背肩間痛, 兩臂內痛, 神有餘則笑不休
脾	面黃, 善噫, 善思, 善味	當臍有動氣安之牢若痛, 其病腹脹滿, 食不消, 體重節痛, 怠惰嗜臥, 四肢不收	脾氣虛則四肢不用, 五臟不安, 脾虛則腹滿, 腸鳴飧泄, 食不化, 脾不足則四肢不用	實則腹脹, 溼洩不利, 實則身重, 善飢, 肉痿, 足不收, 行善契, 腳下痛, 脾有餘則腹滿, 溼洩不利
肺	面白, 善噦, 悲愁, 不樂, 欲哭	臍右有動氣安之牢若痛, 其病喘咳, 洒淅寒熱	肺氣虛則鼻息不利, 少氣, 肺虛則令人喘呼吸少氣而咳, 上氣見血, 下聞病音, 肺藏氣, 氣不足則息利少氣	實則喘噦, 胸憑抑息, 實則令人逆氣而背痛, 慄慄然, 氣有餘則喘咳上氣
腎	面黑, 善恐, 數欠	臍下有動氣安之牢若痛, 其病逆氣, 小腹急痛, 泄如下重, 足脛寒而逆	腎氣虛則厥, 腎虛則胸中痛, 大腹小腹痛, 清厥, 意不樂, 腎虛則心懸如飢, 善恐	實則脹, 實則腹大, 脛腫, 喘咳, 身重, 寢汗出, 愴風

2) 五臟病의 治療

발달된 臟으로 인해 병이 왔음이 확인된 경우는 그 臟의 虛實에 따라 五臟藥으로 치료할 수 있으며,³⁹⁾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五臟病의 治療

五臟	治療	
	虛	實
肝	四物湯, 清肝湯, 補肝丸	瀉青丸, 洗肝散, 當歸龍薈丸
心	錢氏安神丸, 醒心散, 朱砂安神丸	瀉心湯, 導赤散, 十味導赤散
脾	益黃散, 補脾湯	瀉黃散, 調胃承氣湯
肺	補肺散, 獨參湯	瀉白散, 人參瀉肺湯
腎	陰虛	補腎丸, 六味地黃丸, 滋陰降火湯
	陽虛	八味丸, 加減八味丸, 溫腎散

3) 五臟病의 治療例

이래 임상실례는 『지산선생 임상학특강』에 실린 것을 발췌한 것이다.

(1) 肝病의 임상례-I⁴⁰⁾ - 男子 56세

[形色] 目大, 面青

[脈] 74 肝 - 大腸 肝 > 膽 <

72 心 - 膽 肺

[症狀] 옆구리가 결리고 신경질이 자주 난다.

[芝山先生 問診]

▶ 깨끗한 것을 좋아하고 정리정돈을 잘 합니까? ⇒ 예

▶ 옆구리가 결리지요? ⇒ 예

▶ 새벽(寅卯時)에 많이 아프지요? ⇒ 예

[治療] 淸肝湯

[考察] 臟象論은 色과 耳目口鼻의 大小, 高低, 正編, 剛柔를 살펴야 한다. 이 환자는 肝病의 內外症이 확인되었으므로 淸肝湯을 써야한다.

(2) 肝病의 임상례-II⁴¹⁾ - 女子 20세

[形] 눈이 동그랗고 크다, 코가 크다, 입술이 두툼하다, 목젓이 튀어나왔다.

[色] 面痿黃白

[脈] 67 脾 - 小腸 心 > 膀胱 <

69 胞 - 胃 腎

[症狀] 생리통이 있다

[芝山先生 問診]

▶ 생리가 자주 늦어집니까? ⇒ 예, 약 40일 주기입니다.

▶ 생리통이 심하지요? ⇒ 전부터 너무 배가 아파서 진통제를 먹고 참아왔는데, 요즘은 이것도 효과가 없습니다.

▶ 초경은 언제 하였습니다? ⇒ 14세부터 하였습니다.

▶ 갈끔하신 편이지요? ⇒ 예, 깨끗한 것을 좋아합니다.

▶ 아랫배가 자주 잡아당기는 듯 할 때가 있습니까? ⇒ 예, 간혹 그럴 때가 있습니다.

▶ 짜증이 자주 납니까? ⇒ 요즘엔 부모나 친구들에게 신경질을 많이 부리는 것 같습니다.

▶ 눈이 희미하여 보이지 않을 때가 있거나 귀가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 귀가 간혹 멍해질 때가 있습니다.

▶ 대변은 잘 보는 편입니까? ⇒ 시원하지 않습니다.

▶ 겁이 많지요? ⇒ 어려서부터 겁이 많아 놀림을 많이 당했으며, 지금도 남들에 비해서 겁이 많은 편입니다.

▶ 속이 미식거리며 가슴이 잘 두근거리고 얼굴에 열이 오르는 때가 많지요? ⇒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어지러운 때가 많습니다.

[治療] 補肝湯

[考察] 학생왕 : 왜 이 환자에게 補肝湯을 쓰셨습니까? ⇒ 五臟病은 大小, 高低, 剛柔, 正編으로 보는데, 이 환자는 눈이 크다.

36)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Ⅲ, p. 101

37) 對譯東醫寶鑑, p. 305, 311, 317, 323, 329

38) 對譯東醫寶鑑, p. 306, 312, 318, 323, 330

39) 對譯東醫寶鑑, p. 306, 312, 318, 324, 33

40)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Ⅳ, pp. 349-450

41) 芝山先生 臨床學特講Ⅵ, pp. 322-324

학생알 : 저는 月經痛이 심하니까 胞門에서 처방을 찾으실 줄 알았는데, 뜻밖에 다른 처방을 쓰셨기에 어리둥절합니다. ⇒ 당연한 말이다. 병에는 정해진 처방이 없다. 여건에 따라 처방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3) 心病의 임상례 42) - 男子 11세

[形色] 특징 없음.

[症狀] 喜悲가 無常하여 安절부절 한다. 차멀미가 있다.

[治療] 醒心散

[考察] 11세의 나이에 이런(喜悲無常) 문제가 있는 것은 五臟病 중 心臟病에 속하며 나이가 흠이다.

(4) 脾病의 임상례 43) - 女子 11세

[形] 口大, 耳大, 精少

[色] 面黃, 脣赤, 魚際青

[脈] 右74 / 左76

[症狀] 목구멍으로 코가 자꾸 넘어가고, 특히 겨울과 여름에 심하다. 소화가 잘 안되고, 배도 자주 아프고, 설사도 자주 한다. 조그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다. 속이 미식거리며 답음의 증상이 있다. 학교에 다녀와서는 자꾸 드러누우려 한다.

[治療] 補脾湯

[考察] 이 아이는 얼굴색이 누런 것이 특징이니까 五臟病으로 봐야한다. 증상도 脾臟症狀이 많이 보인다. 복진을 해보니 전체적으로 아프다고 하는데, 특히 中脘부위가 많이 아프다고 한다. 그러므로 五臟藥을 생각할 수 있다. 이 환자의 어제가 푸르다. 어제가 푸르면 배가 차다고 했다. 그런데 배만 차겠는가? 그 안에 있는 장기들이 다 차다고 봐야 한다. 속이 차니까 生理痛이나 脛帶下도 있을 수 있고 不妊도 될 수가 있다.

(5) 肺病의 임상례 44) - 男子 12세

[形色] 鼻翼이 숨쉴 때 벌름거리림, 코 들림.

[脈] 84 脾 - 小腸 心

> 膀胱 <

82 胞 - 胃 腎

[芝山先生 問診]

▶한 쪽 볼알이 크지요? ⇒ 아니요

▶소변을 자주 보지요? ⇒ 아니요

▶숨이 차지요? ⇒ 예

▶어깨가 아프지요? ⇒ 예

▶땀을 자주 흘리지요? ⇒ 예

[治療] 補肺散

[考察] 코 鼻翼이 숨쉴 때 벌름거리린다. 이것은 肺虛로 인한 것이다.

(6) 腎病의 임상례- I 45) - 男子 22개월

[形] 肥

[色] 귀가 탈색됨.

[症狀] 몸에 멍이 잘 든다.(혈소관 감소증) 새벽 1시-4시까지 때를 잘 쓴다. 시원하게 하면 잘 잔다. 뜨거운 음식을 못 먹는다. 물

을 많이 마신다.

[過去歷] 양방 모병원에서 용혈성빈혈, 혈소관 감소성 자반증 진단 받음. 다른 병원에서 에반스 신드롬 진단 받음. 성모병원에서 출생 첫날 패혈증이 올 것 같다고 하여 다음날부터 교체수혈 2회(50%씩, 50%씩 두 번 에 걸쳐) 했다. 이후 성장과정에 문제는 없었다. 감기 안 걸리고 건강했다. 백혈병은 아니라고 했다.

[治療] 紫金錠(해독), 滋陰降火湯

[考察] 아이의 귀가 탈색되어 있다. 이것은 腎이 나쁜 것이다. 아이가 水火木金土로 튀어나올 때, 즉 변증할 때 감기약을 써서 온 것이다. 귀와 눈의 陰血이 虛하면 陽氣의 힘을 받지 못한다. 새벽 1시-4시까지 때를 잘 쓴다. 이때가 陽이 盛할 시기이다. 시원하게 하면 잘 잔다, 뜨거운 음식을 못 먹는다, 물을 많이 마신다, 이것은 陽盛陰虛로 봐야 한다. 귀가 탈색된 것은 陽氣를 받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陽虛로 살이 쪼다. 귀는 陽氣를 받는 곳이다. 귀는 붉어야 정상이다. 치료는 4-5년간 걸릴 것이다. 陽氣를 못 받아서 피가 썩는 것이다.

<再診>

[形色] 귀에 혈색이 조금씩 돌아온다.

[脈] 右氣口脈이 緊盛하다.

[症狀] 목소리가 좋아졌다.

[治療] 六味地黃丸

[考察] 사람의 생성이 水에서부터 시작된다. 水를 돌구어 주어 腎부터 생성시켜야 한다. 水生木시킨다. 소아의 장부생성 순서대로 약을 쓴다(水土木金火). 다음은 土氣를 돌군다. 補脾湯을 써야 된다. 補脾湯을 쓰는 이유는 脾臟을 생성시킬 목적도 있지만, 脾臟이란 사람의 形을 만드는 것이다. 즉 주물을 뜨는 주물틀과 같은 것이다. 사람의 形을 만드는 주물틀을 적게 해주기 위해서이다. 五臟門에 나오는 처방들이 이렇게 五臟의 生成을 좋게 하기 위한 약이다. 그러니 五臟門에 나오는 虛症에 쓰는 처방들을 순서대로 쓸 필요가 있다. 혹은 天氣를 돌구는 補中益氣湯을 쓸 수도 있다. 이전에 滋陰降火湯을 쓴 이유는 火가 오르지 못하게 하여 五臟의 뿌리가 되는 腎臟을 단단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滋陰降火湯으로 순을 쳐주어서 뿌리를 튼튼하게 하여 補精을 시키고, 오늘은 六味地黃湯으로 오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腎病의 임상례-II 46) - 男子 42세

[形] 耳大, 코가 삐뚤어졌다.

[色] 面黑

[脈] 87 肝 - 大腸 肝

> 膽 <

76 脾 - 小腸 肺

[症狀] 腰痛

[芝山先生 問診]

▶허리와 등이 아프지요? ⇒ 예! 간혹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심하게 아팠었습니다.

▶당신은 등이 휘어 있습니다. 등이 휘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 선생님! 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X-ray를 찍으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찍

42) 芝山先生 臨床學特講II, pp. 185-186

43) 芝山先生 臨床學特講III, pp. 389-391

44) 芝山先生 臨床學特講IV, p. 292

45) 芝山先生 臨床學特講IV, pp. 380-382

46) 芝山先生 臨床學特講VI, p. 345

있더니 등뼈가 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포경수술을 했지요? ⇒ 예, 중학교 때 했습니다.
- ▶원래 땀이 많이 나는 편이지요? ⇒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고 요즘 들어서는 잠을 잘 때도 약간 흘리는 것 같습니다.
- ▶불알이 약간 짝짝이지 않습니까? ⇒ 글썩요. 잘 모르겠는데요.
- ▶입맛이 별로 없습니까? ⇒ 별로 없습니다.
- ▶대변 보기가 힘이 들 때가 있지요? ⇒ 대변이 약간 묽으면서 시원하지 않습니다.
- ▶뒷목과 어깨 죽지가 빠근하지 않습니까? ⇒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공연히 초조해지고 불안하여 겁이 날 때가 있습니까? ⇒ 요즘 들어 조금 초조해집니다.

[治療] 溫腎散

[考察]

학생왕 : 腎臟病은 外症이 얼굴이 검고 기지개를 잘 켜며 겁이 많고 內症은 배꼽의 아래에 동기가 있고 만지면 단단하고 아프며 그 증상이 배가 창하고 허리가 아프며 대변이 어렵고 어깨와 등, 목, 뒷목이 다 아프고 때때로 어지럽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환자에게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왜 신장이 나쁘다고 보셨습니까? ⇒ 사람은 뼈로써 축을 이루고 등뼈가 앞에 나와서는 콧대가 되고, 콧대가 틀어졌다는 것은 기동이 틀어진 것과 같다. 다시 말하면 등뼈가 휘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 되자 굳이 속을 파헤칠 필요가 없다.

학생왕 : 왜 등뼈가 휘어졌습니까? ⇒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백일 동안은 반드시 반듯하게 눕혀서 키워야 하는데, 만약 안고 흔들면 척추가 휘어지게 된다. 예를 들면 엇가락을 뽑아서 가지런히 놓고 굳혀야 하는데, 물렁물렁할 때 손으로 만지면 삐뚤어진 엇모양이 되어 버리는 것과 같다.

학생왕 : 이 환자가 얼굴이 검은 것은 선천적으로 검은 것입니까, 아니면 후천적으로 검어진 것입니까? ⇒ 이 환자는 후천적으로 검어진 것으로 본다.

학생왕 : 왜 후천적으로 검어진 것으로 보십니까? ⇒ 귀가 큰 것이 그것을 말한다.

학생왕 : 귀가 큰 것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 등뼈가 나쁘면 뿌리가 든든해야 한다. 그러기에 귀를 크게 만들었다

학생왕 : 육미지황탕을 쓸 수는 없습니까? ⇒ 그렇게는 할 수 없다. 차다는 것은 굳힌다는 뜻이다. 콧대가 바르지 못한 것은 다시 덥혀서 바로 잡아줘야 한다. 이 환자는 骨髓痛으로 보고 溫腎散을 쓴 것이다.

5. 六腑病의 症狀과 治療

1) 六腑病의 症狀

顔面과 身體에 상응되는 부위로 각 腑의 形象을 살필 수 있으니, 腑로 인한 病이 의심될 경우는 有關 病症의 有無로 확인할 수 있으며, 六腑의 病症⁴⁷⁾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六腑의 病症

六腑	病症	內經	기타
膽	善太息, 口苦, 噦有苦汁, 心中澹澹恐, 如人將捕之, 噦中咿訥然數唾		痛悶左邊五肋之中, 血瘀生癭馬刀. 又, 膽候咽門, 故熱壅則生瘰癧痛 膽病多寒熱 膽虛則恐畏不能獨臥, 膽實則怒 膽實則怒而勇敢, 膽虛則善恐而不敢也 膽虛則不眠, 膽實則多唾
胃	腹脹脹, 胃脘當心而痛, 上肢兩脇, 膈 口壅不通, 飲食不下 飲食不下, 膈塞不通, 邪在胃脘也 胃中寒, 則手魚際之絡脈多青 胃中熱, 則手魚際之絡脈多赤 面熱者, 足陽明病, 兩跗之上脈堅豎者, 足陽明病, 此胃脈也		胃中元氣盛, 則能食而不傷, 過時而不飢, 脾胃具旺, 則能食而肥, 脾胃具虛, 則不能食而瘦, 或少食而肥, 雖肥而四肢不舉
小腸	小腹痛, 腰脊控牽而痛, 時寤之候, 當耳前熱 小腸控牽引腰脊上衝心, 邪在小腸也		小腸有氣則小腹痛, 小腸有血則小便澁, 小腸有熱則莖中痛
大腸	腸中切痛而鳴濯濯, 冬日重感于寒即泄, 當臍而痛, 不能久立 腹痛, 腸鳴, 氣上衝胸, 喘, 不能久立, 邪在大腸也 腸中寒則腸鳴, 飧泄, 腸中熱則出黃如糜 腸痺者, 數飲而出不得, 中氣喘爭, 時發飧泄		腸虛則鳴, 又, 寒氣相搏則胃腸鳴, 大腸有寒者多驚瀉, 有熱者便腸垢
膀胱	小腹偏腫而痛, 以手按之, 則欲小便而不得, 肩熱, 若脈陷, 及足小指外廉, 脛踵後皆熱 膀胱不利爲癰, 不約爲遺尿		膀胱病者, 熱結下焦, 小腹苦滿, 胞轉, 小便不利, 令人發狂 冷則濕痰上溢而爲多唾, 小便淋瀝或遺尿
三焦	腹氣滿, 小腹尤堅, 不得小便, 窘急, 溢則水, 留則爲脹 小腹痛, 腫, 不得小便, 邪在三焦約也		上焦如霧, 霧不散則爲喘滿, 此出而不納也, 中焦如瀉, 瀉不利則爲留飲, 留飲不散, 久爲中滿, 此上下能納, 下不能出也, 下焦如瀆, 瀆不利則爲腫滿, 此上納而下不出也

2) 六腑病의 治療

六腑病임이 확인되었을 때는 그 腑의 虛實과 寒熱 등에 따라 六腑藥으로 治療할 수 있으며,⁴⁸⁾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六腑病의 治療

六腑	治療	虛	實
膽		仁熟散	半夏湯, 小柴胡湯
胃		異功散, 補中益氣湯	養胃進食湯
小腸			導赤散, 赤茯苓湯
大腸			(熱)瀉白散 (寒)實腸散
膀胱	既濟丸, 加減八味湯加味	益元散, 癸子湯	五苓散
三焦			木香檳榔丸, 三和散, 枳殼丸

47) 東醫寶鑑國譯委員會 譯, 對譯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1999, pp335

336, 339, 343, 346-347, 350, 354
48) 對譯東醫寶鑑, p. 336, 339, 344, 347, 351, 354

2) 六腑病의 治療例

(1) 膽病의 임상례-I 49) - 男子 5세

[形] 臥蠶大(두툼)

[色] 眼胞가 검다

[症狀] 手熱, 手掌이 잘 벗겨짐, 잦은 목감기, 겁이 많고, 혼자 떨어져 있을 못하고 엄마 치마꼬리를 잡고 다니며, 잘 떠함.

[治療] 仁熟散

[考察] 臥蠶부위가 검고 두툼한 걸로 보아 膽에 寒熱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膽病의 임상례-II 50) - 女子 6세

[形] 손톱이 얇고 떴다, 上脣이 들렸다

[色] 面瘡白

[症狀] 대변이 고르지 못하다

[芝山先生 問診]

▶ 아이가 엄마 치마를 붙잡고 놓지를 않지요? ⇒ 예! 엄마 곁에서 떨어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 저녁에 잘 때 불을 끄게 합니까? ⇒ 불을 끄면 무섭다고 합니다.

▶ 손톱이 잘 들뜨니까? ⇒ 잘 들뜨고 손톱을 잘 깨뜩니다.

▶ 목감기를 자주 앓습니까? ⇒ 우리 아이는 감기에 걸려도 목부터 시작합니다. 병원에서는 편도선이 크다고 합니다.

▶ 어려서 경기를 하지는 않았습니까? ⇒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 땀을 많이 흘리지요? ⇒ 저녁에 잘 때 보면 뒷목과 등이 축축하게 젖습니다.

▶ 귀밑에 멍울이 만져지는데 혹시 이하선염을 앓은 적이 있습니까? ⇒ 멍울이 있는 지도 몰랐습니다.

▶ 밥은 잘 먹습니까? ⇒ 잘 먹는 편도 아니고 밥을 먹으려면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治療] 仁熟散

[考察]

女子는 六腑를 體로 하고 五臟을 用으로 삼는 것이다. 이 여자 환자는 六腑에 病이 들었기 때문에 本病이라고 한다.

학생알 : 이 환자는 손톱이 들뜬 것으로 보아 肝이 나쁘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그렇게 볼 수도 있다. 肝과 膽은 表裏關係에 놓여 있으므로 肝이 나쁘다고 볼 수도 있고 膽이 나쁘다고 볼 수도 있다. 여자는 입을 胃로 보고, 人中을 小腸으로 보며, 코를 大腸으로 보고, 眼胞를 膽으로 보고, 들창코를 膀胱으로 본다. 그리고 코의 생김새를 보고 三焦의 좋고 나쁨을 판단한다. 이것은 六腑의 생김새를 말한 것이다. 問診을 통해 연역된 상황을 특정화시켜서 귀납적인 방법으로 처방을 구하는 것이 임상이므로, 問診에서 드러난 것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3) 胃病의 임상례 51) - 女子 34세

[形色] 口大出, 鼻大, 人中長, 陽明形

[症狀] 몸이 무겁고, 잠이 자꾸 쏟아진다.

[芝山先生 問診]

▶ 몸이 피곤하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가끔 붓지 않습니까? ⇒ 예, 좀 붓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배가 차면서 통증이 있습니다.

[治療] 平胃散

[考察] 몸이 무거운 것은 濕으로 인하여 脾肝腎의 火가 動하지 못해서 그러한 것이다. 입이 크고 코가 크면 濕이 있다는 것은 어디에 나온 말이니? 女子는 六腑를 體로 하고 男子는 五臟을 體로 해. 따라서 女子는 입이 胃가 되고 코는 大腸이 되는데, 男子는 입은 脾가 되고 코는 肺가 되지. 코와 입이 큰 여자는 腸胃가 큰데, 이런 사람은 脾肝腎이 虛해. 脾肝腎이 虛하면 脾肝腎의 火가 動하지 못하고 濕을 배제하지 못해서 몸이 무겁고 잠이 많게 돼. 平胃散을 흔히들 소화제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 平胃散은 除濕劑로서 여기서는 脾肝腎을 좋게 해주는 작용을 하고 있어. 除濕湯이나 不換金正氣散은 平胃散의 變方이야, 몸이 무겁다는 것은 모두 濕氣가 있기 때문이지.

(4) 小腸病의 임상례 52) - 女子 7세

[形色] 人中이 짧고, 上脣이 들림

[症狀] 하지를 쓸 수 없어서 업혀 음.(1996년 7월 31일)

[過去歷] 1996년 7월 2일에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小便이 逆流한다고 해서 소변을 뽑아냄.

[治療 및 경과] 赤茯苓湯, 紫金錠. 1996년 8월 10일 내원 : 환자가 혼자서 소변을 한 번 봄. 赤茯苓湯을 계속 투여함. 이로부터 5일 후 혼자서 설 수 있게 되었다고 연락 음.

[考察] 이 환자는 人中이 짧기 때문에 小腸에 熱이 있는 것이다. 小腸에 熱이 있으면 熱이 下焦를 쳐서 津液을 행하지 못하게 되므로, 小便이 不利하고 下肢를 쓸 수 없게 된다.

(5) 大腸病의 임상례 - 男子 5세

[形] 鼻隧長, 耳大

[色] 面白

[症狀] 설사를 자주 한다. 배 아프면 금방 화장실에 가야한다. 양방에서 여러 차례 치료를 했으나 그때 뿐이라 한방치료를 원하여 내원하였다.

[治療] 實腸散

[考察] 코가 긴 것은 대장이 나쁘다는 뜻이다. 얼굴이 흰 것은 肺氣가 허한 것으로 본다. 이 아이는 肺, 大腸의 표리관계가 나빠서 병이 온 것이다. 대변이 오리똥 같을 것이다.

(6) 膀胱病의 임상례 53) - 男子 9세

[形] 鼻孔이 보임

[色] 面黑, 이마와 입주위가 검다

[脈] 右80 / 左83

[症狀] 소변이 시원치 않다.

[治療] 加減八味丸

[考察] 얼굴이 검다는 것은 五臟 중의 腎臟이 나쁜 것이고, 鼻孔이 드러나 보이는 것은 六腑 중의 膀胱이 나쁜 것이고, 이마가

49)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 p. 282

50)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VI, p. 142

51)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I, pp. 92-93

52)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VII, pp. 410-411

53)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V, pp. 191-192

53)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II, p. 92

55) 芝山先生 臨床學特講 IV, p. 143

검은 것은 津液之腑가 나쁜 것이다. 이 환자는 男子이니 六腑부터 풀어 나가야 하는데, 오장과 육부가 같이 나빠져서 나타나므로 加減八味丸을 쓴다. 만약 六腑가 나쁠 경우에는, 膀胱의 主藥인 五苓散을 쓸 수 있다. 鼻孔이 드러난 老人의 小便이 濁한 증상은 나이가 들어서 血之腑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증세이므로, 이는 老人病이지 五臟六腑나 六氣나 身形이 나빠서 오는 병이 아니다. 이럴 경우는 鼻孔을 주로 보지 말고(五苓散을 쓰지 말고) 차라리 老人腎氣丸을 主藥으로 써야 한다.

(7) 三焦病의 임상례-I⁵⁴) - 女子 18세

[形] 三焦結, 코가 강하고 下降했고, 눈꼬리가 올라갔다, 氣科, 膀胱體, 우측 눈섭 끝부분에 痰塊가 있다.

[色] 眼下煙灰色

[脈] 80 胞 - 胃 心

> 膀胱 <

76 脾 - 小腸 腎

[症狀] 생리통이 심하다(遲經), 痰飲症狀(惡心, 眩暈, 心悸...)이 있고 便秘가 심하다, 속이 쓰리고 소화 안 된다. 여드름이 많다

[治療] 木香檳榔丸

[考察] 三焦가 結했다는 것은 形으로 봐라, 形이 六腑가 나쁘다는 뜻이다.

(8) 三焦病의 임상례-II⁵⁵) - 男子 57세

[形色] 메부리코. 觀骨부위, 太陽穴부위, 承漿穴부위에 껌질이 벗겨짐.

[脈] 72 肝 - 大腸 肝

> 膽 <

70 心 - 膽 肺

[症狀] 목이 뻣뻣하고 목을 돌리면 사각거리는 소리가 난다.(병원 : 경추디스크 진단), 우측 귀에서 소리가 난다. 정력이 약하다. 근시가 약간 있다. 小便不禁症.

[過去歷] 늑골 사이에 섬유종이 있어서 늑골 하나를 제거했다.

[治療] 既濟丸

[考察] 이것은 三焦가 나빠서 온 것이다. 三焦의 上焦, 中焦, 下焦의 通利작용이 잘 안된다. 메부리코가 三焦가 나쁜 것을 말하고 있다. 肋骨를 제거했다는 것은 中焦가 나쁜 것을 말하고 있다. 既濟丸으로 三焦를 通利시켜야 한다. 三焦는 膀胱과 같이 본다.

결론

臟腑病을 形象醫學의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사람은 대우주인 천지자연을 담은 소우주로 사람마다 서로 다른 臟腑의 偏差가 다양하게 존재한다. 臟腑의 自體 문제로 생긴 病이 臟腑病이며, 臟腑의 形象 特徵이 있을 때 臟腑病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臟腑의 形象은 얼굴과 耳目口鼻의 形과 色을 통해 가장 잘 살필 수 있다. 五臟의 形象 관찰에서는 大小가 위주가 되는데, 大가 小보다 병리적인 원인이 되기 쉬우므로 발달된 臟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六腑의 形象 관찰에서 膽, 胃는 大小가 위주가 되며, 大腸, 小腸은 長短이 위주가 되며, 膀胱은 漏泄여부가 위주가 되며, 三焦는 直結여부가 위주가 된다. 臟腑의 形象 特徵이 있어 臟腑病이 의심될 때는 脈과 症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問診을 통해 불특정한 것을 특정화시킬 수 있다. 形色脈症의 合一을 통해 臟腑病임이 확인된 경우는 그 虛實과 寒熱 등에 따라 臟腑門의 藥으로 治療할 수 있다. 臟腑의 形象이 특히 우선적으로 살펴져야 할 경우는 어린아이의 경우, 老人의 경우, 臟腑의 偏差가 매우 두드러진 경우, 臟腑의 手術을 받는 경우 등이다.

참고문헌

1. 成樂箕 編著, 八十一難經解釋, 서울, 高文社, 1990.
2. 大韓傳統學會 編, 芝山先生 臨床學特講V, 서울, 1998.
3. 大韓傳統學會 編, 芝山先生 臨床學特講VI, 서울, 1998.
4. 大韓傳統學會 編, 芝山先生 臨床學特講VII, 서울, 1999.
5. 楊維傑 編, 黃帝內經譯解(靈樞), 서울, 成輔社, 1980.
6. 楊維傑 編, 黃帝內經譯解(素問), 서울, 成輔社, 1980.
7. 清 陳夢雷 等編, 醫部全錄, 북경시, 人民衛生出版社, 1983.
8. 東醫寶鑑國譯委員會 譯, 對譯東醫寶鑑, 서울, 法仁文化社, 1999.
9. 大韓傳統學會 編, 芝山先生 臨床學特講I, 서울, 1996.
10. 大韓傳統學會 編, 芝山先生 臨床學特講II, 서울, 1999.
11. 大韓傳統學會 編, 芝山先生 臨床學特講III, 서울, 1997.
12. 大韓傳統學會 編, 芝山先生 臨床學特講IV, 서울, 1998.
13.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素問研究集成, 익산, 2001.